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1월, 벨기에)**

2018.0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1월 _주 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 예술축제 연이어 개최	3
2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 브라파(BRAFA) 개최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기관 및 단체	La Venerie / 라 베느리	5
4		공간	Bibliotheque Solvay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5
5			Concertgebouw Brugge /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6
6			KVS(Royal flemish Theatre) / 로열 플레미쉬 극장	7
7		축제 및 행사	Zinneke Parade / 지네케 퍼레이드	8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전시/축제	장르	시각예술/공연예술
관련링크	브뤼헤 포토 : http://www.bruggefoto.be/ 브뤼헤 문화센터(CC) : http://www.ccbrugge.be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 http://concertgebouw.be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 예술축제 연이어 개최

지난 12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를 개최한 것과 더불어, 브뤼헤의 콘체르트헤바우(Concertgebouw Brugge)와 브뤼헤 문화센터(Cultuurcentrum Brugge)는 연이어 또다른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브뤼헤는 운하와 고딕 양식 건축물 등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현재 시 정부는 이러한 관광수입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디셈버댄스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예술축제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브뤼헤의 44갤러리, 드 탱크(De Tank), 복스쿤데뮤지엄(Volkskundemuseum) 등에서는 사진축제 <브뤼헤 포토 Brugge foto>가 열렸다. 지난 12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 축제는 올해로 제5회를 맞이, 총 10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브뤼헤 시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로 약 45명의 국내외 사진작가가 참여했다. 주최측은 다큐멘터리 포토부터 초상사진까지 장르에 무관하게 작품을 선정, 전시했으며, 신진작가와 기성작가의 작품을 고루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브뤼헤 포토>가 단지 한 두 미술관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까닭은 관람객들이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니며 브뤼헤 전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위함으로, 주최 측은 “도시성”에 축제의 방점을 둔다.

특히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 포토>를 12월 <디셈버 댄스> 축제와 연계했다. <디셈버 댄스>의 큐레이터 크리스티앙 리조가 선정한 작품이 콘체르트헤바우에서 <Ad Noctum>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사진작가 아네리스 드 메이, 오로레 달 마스 등의 흑백 사진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 관람객들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큐레이터 및 사진작가들의 리뷰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세션, 워크숍 세션 등이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편 브뤼헤 문화센터는 <디셈버 댄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무용 축제를 기획했다. <춤의 비트(Bits of Dan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축제는 젊은 무용수 및 안무가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진 안무가 및 공연자들의 작품을 초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문화센터 산하의 MaZ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는데, 스위스 출신의 안무가 레아 모로, 미국 출신의 안무가 트라잘 하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춤의 비트> 이후에도 브뤼헤 콘체르트헤바우와 문화센터에서는 <벨 문도(Bel Mundo)>, <와크(WAK)>, <에어백(Airbag)> 등 여러 축제가 끊임없이 진행된다.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의 음악, 문학, 무용 공연을 위한 <벨 문도>가 3월, 로컬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 및 상연을 위한 <와크>가 4월, 아코디언 악기 비엔날레 <에어백>이 5월에 열린다. 브뤼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브뤼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축제들로, 브뤼셀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 및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현지 동향 <2>

유형	전시/아트페어	장르	시각예술
관련링크	www.brafa.art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 브라파(BRAFA) 개최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브뤼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인 <BRAFA(브라파, Brussels Art Fair)>가 열린다. 고대 회화작품부터 앤티크 공예작품과 가구, 보석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이 거래되는 아트페어로, 1956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最古)의 아트페어 중 하나이다. 벨기에 및 해외 지역에서 약 13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하는데 올해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영국, 일본 등 15개국으로부터 작품이 출품 및 거래될 예정이다. 매년 약 1만 5천개 정도의 작품이 선을 보인다. 고고학적 또는 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서부터 오래된 동전이나 보석, 가구, 회화, 도자기, 자동차까지 약 20개 장르를 포함한다.

BRAFA는 매년 초청작가(Guest of honor)를 선정하고 특별전을 마련하는데, 작년 옵티컬 작가 홀리오 르 파르크(Julio le Parc)가 작품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는 크리스토(Christo)가 초청작가로 선정되었다. 크리스토와 그의 부인 잔느 클로드는 이른바 대지미술작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작품은 자연의 일부나 대형 건축물을 천으로 감싸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번 BRAFA에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hree store fronts>가 전시될 예정인데 약 14m 길이에 3m의 높이로 역대 BRAFA에서 전시된 작품 중 최대 규모의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매일 4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큐레이터, 수집가, 감정가 및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 세션 <브라파 아트 토크>를 가진다. 앙리 마티스와 북한 예술가의 관계, 현대 미술계에서 스캔들이 갖는 의미,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방법, 오세아니아 미술에 대한 탐구 등 여러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로 63회를 맞이하는 BRAFA는 벨기에 왕립미술관, 보자르, 라모네, 생깁뜨네흐 미술관 등 브뤼셀 시내의 주요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올해도 약 6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명	La Venerie / 라 베느리		
유형	예술기관	장르	복합
운영주체	La Venerie a.s.b.l(비영리단체)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1년
기관현황	'Les Ecuries', 'L'espace Delvaux' 2개 장소 운영 (공연장, 작업 공간 등 보유)		
홈페이지	http://lavenerie.be/		

‘라 베느리’는 벨기에 워터마엘부아포르(Watermael-Boitfort) 지역의 예술기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1년 벨기에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의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워터마엘부아포르 지역의 예술기관들이 모여 비영리단체 ‘라 베느리’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기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음악, 연극, 콘서트, 영화, 인터뷰, 컨퍼런스 등을 기획 및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 베느리’는 <Fete des Fleurs>라는 이름의 예술축제를 매 2년마다 주최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2018년으로 30회를 맞이한 유서 깊은 축제로서 매년 “꽃”과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길거리 예술(Arts dans la Rue)”의 창작과 시연을 지원하며, 주로 마임이나 광대극, 인형극, 무언극, 비정형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라 베느리’는 지역주민이 문화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연극이나 공예 워크샵, 글쓰기, 토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Tip]

‘라 베느리’는 한국문화원과도 활발하게 협력해 온 기관으로, 한국문화와 관련이 있는 음악, 무용, 영화, 전시를 제공하는 <한국의 숨결(Souffle Coreen)>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2017년 6월 제3회 축제에서는 <숙영남자전> 판소리 공연과 더불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기관명	Bibliothèque Solvay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유형	공간/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Edificio SA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02년
기관현황	- 브뤼셀 EU 의회 근처 레오폴드 공원(Parc Leopold) 내 위치 - 도서관을 개축한 공연장 및 리셉션 공간 보유		
홈페이지	http://new.edificio.be/		
비블리오테크 솔베이(Bibliothèque Solvay, 솔베이 도서관)는 1902년 건축가 콘스탄트 보스만(Constant Bosman)과 앙리 반데벨트(Henri Vandevelt)가 아르누보 스타일로 설계한 고풍스러운 건물이다. 당시 건축가 에르네스트 솔베이와 브뤼셀자유대학(ULB)이 지원, 학문적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이었으나 1991년 개축 및 1994년 개명된 이래 현재는 ‘Edificio SA’가 관리를 맡아 각종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대관 중이다. 과거 열람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공간에서 실내악 클래식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기타 퍼포먼스 공연 등을 진행되고 있다. 건축 당시의 양식이 남아 있어 고유의 심미성을 자랑하며, 2018년 5월에는 벨기에 최대의 예술축제인 ‘쿤스텐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관객참여형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 1-3 :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내/외관

* [TIP]

관리기관 ‘에디피시오 솔베이(Edificio Solvay)’는 비블리오테크 솔베이 인근에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위한 공간 ‘콘서트 노블(Concert Nobel)’ 역시 갖추고 있다. 대관과 케이터링 서비스 수입 등으로 두 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 관리기관 스스로 프로그래밍이나 큐레이션은 진행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나 대관을 통해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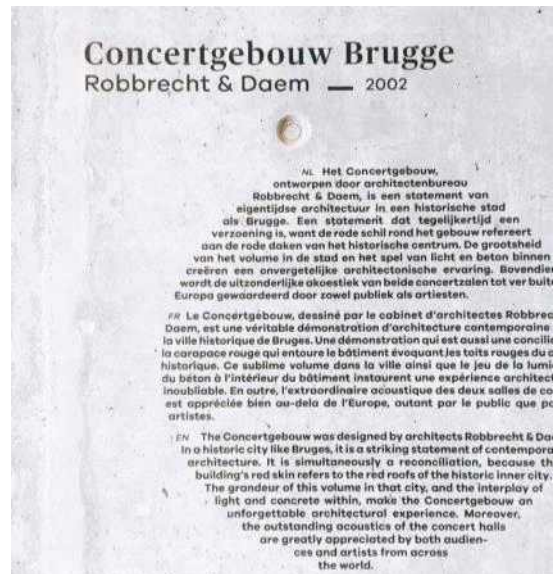
공간명	Concertgebouw Brugge / 콘체르트헤바우 브뤼헤		
유형	공간/기관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concertgebouw Brugge		
소재지	브뤼헤, 벨기에	설립년도	2002년
공간현황	대형 콘서트홀(1,200석 규모), 실내악홀(300석 규모) 등 보유		
홈페이지	http://www.concertgebouw.be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의 대표적인 극장이자 문화 콤플렉스로, 브뤼헤 예술공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브뤼헤의 문화 부흥을 위한 “Brugge Cultural Capital of Europ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내부에 약 1,2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Concertzaal)과 약 300석 규모의 실내악 전용 홀(Chamber hall) 외에도 전시공간과 리허설 공간, 소형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형 홀의 경우는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위한 공간으로, 소형홀은 실내악 전용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 공간이 전시, 워크숍, 컨퍼런스, 레지던시, 리허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콘체르트헤바우는 음악 또는 무용계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해 다수의 레지던시 및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클래식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컨템포러리 뮤직 아티스트 레지던시, 고음악 아티스트 레지던시 및 현대무용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 중이다.

(사진 1-4 : 콘체르트헤바우 내/외관)





* [tip] 콘체르트헤바우는 브뤼헤예술센터(Cultuurcentrum Brugge)와 함께 브뤼헤 예술계의 두 중심축을 이룬다. 두 기관은 함께 매년 12월 현대무용축제 〈디셈버 댄스(December dance)〉를 개최하며, 콘체르트헤바우는 대형 홀과 워크샵 공간 등을, 브뤼헤예술센터는 시립극장(Stadsschouwburg)과 막달레나홀(MaZ), 비어코프(Biekorf) 극장 등을 제공한다. 현재 콘체르트헤바우의 댄스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샘 레이미커스는 2007년 〈디셈버 댄스〉 축제를 기획 및 시작한 장본인으로, 2018년까지만 콘체르트헤바우의 댄스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이후부터는 오슬로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기도 하다.

공간

공간명	KVS (Royal flemish Theatre) / 로열 플레미쉬 극장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KVS (Royal flemish Theatre)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852년
공간현황	대형 홀(KVS BOL), 중소규모 홀(KVS BOX), 컨퍼런스 공간 등 보유		
홈페이지	www.kvs.be		

KVS(로열 플레미시 극장, Royal Flemish Theatre)는 1852년 설립, 1887년 개축된 후 “Royal” 호칭을 수여받은 브뤼셀의 대표적인 극장이다. 현재는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음악, 무용, 연극 등 여러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로서 1800년대 건물 양식을 간직한 옛 건물과 신축건물 두 개를 보유, 운영 중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문화권의 중요 기관 중 하나로 벨기에 시 정부와 플랑드르 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전작품과 신규작품, 해외 초청작품을 활발히 상연할 뿐만 아니라 연출가, 안무가, 작가, 음악가, 극작가, 퍼포머 등을 위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지역 커뮤니티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 건물의 공연장 ‘KVS Bol’은 약 5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콘서트부터 현대무용까지 여러 장르의 공연을 상연한다. 신축 건물의 ‘KVS Box’는 약 200명 정도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외에도 컨퍼런스나 세미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루프탑 ‘TOP’과 리셉션용 공간 ‘Atrium’, ‘Foyer’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KVS에서는 안무가 빔 반데키부스, 비주얼 아티스트 콜렉티브 Farm Prod 등이 작업,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사진 1-2 : KVS외관 / 3 : KVS BOX / 4 : KVS BOL)



* [Tip] 브뤼셀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문화권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브뤼셀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소속되는 예술기관은 주로 플랑드르 연합의 지원을, 후자는 왈로니-브뤼셀 연합의 지원을 받는다. 상연 프로그램의 종류도 소속 지역 및 파트너 연합의 영향을 받아, KVS에서는 네덜란드어 공연이 자주 상연되는 반면 왈로니 국립극장(National Thatre)에서는 프랑스어 공연을 위주로 상연한다. 그러나 벨기에의 공용어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이고 브뤼셀 시의 정책이 뉴스부터 간판까지 모든 내용을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병기하는 것인 만큼, 많은 공연장이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I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Zinneke Parade / 지네케 퍼레이드		
유형	축제/행사	장르	복합/공연예술
운영주체	지네케 (Zinneke A.S.B.L)		
개최시기	매 짝수해 5월	시작년도	2000년
개최도시	벨기에 브뤼셀		
참가규모	150개 이상 예술단체 및 아티스트 참여		
홈페이지	https://zinneke.org		

비영리단체 Zinneke (a.s.b.l)가 주최하는 비엔날레 <Zinneke Parade (지네케 퍼레이드)>는 매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현대예술행사이다. 2000년 브뤼셀 시의 문화다양성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로 시작한 후 2018년 제10회를 맞이하였고, 현재는 약 150개 이상 예술단체 참여 축제로 발전하였다. 2016년에는 <Flemish Culture Prize>의 민간축제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Zinneke”는 떠돌이 개를 의미하는 브뤼셀 방언으로, 다양한 국적 및 인종이 공존하는 브뤼셀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즉 여러 지역과 장르 간 혼종, 협업,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 및 사회적 동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최기관과 퍼레이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썩수 해의 퍼레이드를 위해 2년간 기금을 조달하고, 참여 단체와 아티스트를 모집하며 축제를 움직이는 하부 조직 “지노드(Zinnode)”를 구성한다. 이후 지노드는 퍼레이드까지 워크숍 및 프리セッション(Pre-session)을 10~15차례 정도 가지며 5월 퍼레이드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즉 최종 시연보다 과정을 위한 축제로서, 이미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는 장이 아니라 아티스트 또는 일반 참가인의 아이디어에 기반 해 여러 명이 새로운 작품을 공동 창작하는 과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가깝다. 매 행사마다 특정한 테마를 지정해 그에 대해 지노드들이 워크숍 및 작품 창작을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Disorder”, “Tentation”, “Fragile”에 거쳐 2018년에는 “Illegal”을 주제로 퍼레이드가 열린다. 지역 거주인과 예술단체, 아티스트, 학교, 정부기관 등 다양한 규모의 참가인이 운집하는 자리이다.

[TIP]

※ 역대 Zinneke Parade 개최일 및 주제

- 2000.05.27. 1회 : La Ville 도시
- 2002.05.25. 2회 : Zinnergies 지네케-에너지
- 2004.05.24. 3회 : Le corps dans la ville 도시의 신체
- 2006.05.13. 4회 : Toekomst a venir :다가오는 미래
- 2008.05.31. 5회 : Eau 물
- 2010.05.22. 6회 : A Table 모임
- 2012.05.19. 7회 : Desordre 무질서
- 2014.05.10. 8회 : Tentation 유혹
- 2016.05.21. 9회 : Fragile 연약함
- 2018.05.12. 10회 : Illegal 불법의

기관 단위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2016년에는 포레스트예술학교, 에터백문화센터 등 학교와 지역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여러 지역의 주민, 아티스트, 기관/단체를 모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로 벨기에 및 브뤼셀이라는 도시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축제이다.